

삼성석유화학, 서산 PTA 감산 지속

재가동하더라도 70-80%선 불과 ... 삼남도 여수 55만톤 재가동에 신중

삼성석유화학은 10월13일 서산 공장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0월12일 밝혔다.

서산공장은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 원료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70만톤을 생산해왔으나 9월26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석유화학 측은 당초 10월8일까지 중단했다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기로 했으나 시장 상황이 기대하는 수준을 밑돌아 결정 시일을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석유화학 관계자는 “만약 재가동한다고 해도 가동률은 70-8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PTA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수요처들이 원유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내세워 원유, 특히 나프타(Naphtha)를 원천 원료로 하는 PTA 가격의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PTA 생산기업들은 PTA의 직접적인 원료로 사용되는 P-X(Para-Xylene)를 높은 가격에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PTA 생산기업들은 SK, S-Oil, 삼성토탈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기업들로부터 P-X를 조달받고 있으나, 원유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프타에서 생성되는 P-X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높은 가격에 이를 조달하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PTA 170만톤 생산능력을 보유한 삼남석유화학도 9월22일 가동을 중단한 여수공장 55만톤 설비 재가동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수요처 등의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시장 3위의 KP케미칼도 100만톤 규모의 울산공장 설비 가운데 35만톤 라인을 11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정기보수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2>